



의

종소리

긴 세월 한쪽 찢어
머리 동인 흰옷의 사나이

언제부터라
낮이면 금도끼로
밤이면 은도끼로
백두산을 뚫쳐로
깎고 다듬어
삼하 오천년-

비로소
오늘의 진풍속에 추켜든
대단군의 혼백
오, 어여빠라
눈물겨운 무궁화 한송이

-《백의의 석공》

김 파 시 집

태양의 종소리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채 설

图书在版编目(C I P)数据

太阳的钟声 / 金波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5. 12
ISBN 7-80698-581-6

I. 太... II. 金... III. 诗歌-作品集-中国-当
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5) 第147156号

太阳的钟声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图们市荣华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9 字数: 19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581-6 / I86 (民文)

版次: 2005年12月第1版

2005年12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6.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저자력:

1942년 흑룡강성 해림현 출생.

연변작가협회 회원.

주요작품: 서정시집 《흰 돛》,

《대륙에 묻혀있는 섬》, 《겨

울나비》, 《보라빛 리유》.

장편서사시 《천추의 충혼 안

중근》, 서정서사시집 《사랑의

별》, 장편인물전기 《홍범도장

군》(공저), 동화시집 《해순이와

달남이》, 《신기한 피리》,

시론집 《립체시론》(서정서사

시론 포함).

10여차 문학상 수상.

시인의 말

시인은 항상 시점을 주시한다. 그것은 시의 화살이 투과해야 할 과녁이기 때문이다. 현세계는 생존위기가 날로 전 지구적으로 팽창, 위협하고있다. 한것은 현대권력주의가 카멜레온의 변신으로 무단폭력이 아니면 무형의 유연폭력을 감행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인은 술잔 기울여 음풍영월할 때가 아니다. 그와는 달리 시대와 인류, 권력앞에서 진실을 읊어야 하며 권력후면의 음영을 밝히고 비리를 규탄하며 진정한 실존의 가치령역들을 개척하기 위해 날카롭게 펜촉을 갈아야 할것이다.

한 시인의 시적신념이란 물방울이 바위돌을 구멍 뚫는다는 집념으로서 언젠가는 시간이 그를 증언할것이다.

그런 뜻에서 시의 현대성을 주축으로 하면서 포스트모더

2 / 태양의 종소리

니즘시와 립체시를 위주로 이번 시집을 묶어보았다.

희망하건대 평론가, 시인, 독자들의 뜨거운 편달과 조언을 부탁하며 이 기회를 빌어 나의 모든 시집 출서에 찬조와 지지를 보내온 아들 김일의 효성에 감개함을 세인들에게 알리는바이다.

아울러 본 시집 출판에 아낌없는 로고를 기울여주신 연변인민출판사 편집일군들에게 삼가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드리는바이다.

2005년 6월 15일

대련에서

차 례

1. 기억의 상처

- 춘심 / 3
- 아침바다풍경 / 4
- 호수의 사념 / 5
- 겨울바다 / 6
- 현대장미 / 7
- 가시 돌친 미학 / 8
- 궁전축사 / 9
- 플빛사념 / 10
- 고무풍선 / 11
- 달녀의 일생 / 12
- 한낮의 오염 / 13
- 도심의 빼꾸기 / 14
- 상황위기 / 15
- 백주밀입 / 16
- 이성(異性)부감도 / 17
- 사냥군수기 / 18
- 흰 기발 / 19
- 언어포장 / 20
- 구급치료 / 21

2 / 태양의 종소리

- 무념 / 23
- 영원속의 흔들림 / 24
- 항구 / 25
- 회춘 / 26
- 뱀의 거동 / 27
- 결혼등기 / 29
- 사슴뿔 / 30
- 풍화 그리고 눈물 / 31
- 기억의 상처 / 32

2. 사물들의 언어

- 발언 / 35
- 날벌레 그리고 태양 / 36
- 글농사, 허무의 수확 / 37
- 의문부호 낚시질 / 38
- 소리의 그림자들 / 39
- 바람 부는 날 / 40
- 분부, 떨어진 철추 / 41

날음의 기포들 / 42
록주를 위한 서곡 / 44
배 / 45
길 / 46
언어도새증(堵塞症) / 47
자유의 부름 / 48
술추렴 / 49
영별 그리고 눈물 / 50
간판 / 51
폭죽소리 그리고 풍선들 / 52
사물들의 언어 / 53
스피커 / 54
균렬(2) / 55
익사하는 《이식론》 / 56
작두날 그리고 병어리 / 57
의문부호짓기 / 59
소나무 그리고 산란 / 60
창백한 그림자 / 61
사진첩 / 62

4 / 태양의 종소리

- 팽창하는 태양 / 63
- 묵상(默想) / 64
- 해살 / 65
- 올빼미눈에 비긴 풍경 / 66
- 기포(气泡) / 67
- 도적놈의 세상 / 68
- 시각언어 / 69
- 개장국 / 70
- 폴빛감각 / 72

3. 21세기 공사장

- 파리떼 / 75
- A형-신식로봇 / 76
- 넥타이 / 78
- 현대진단1호 / 80
- 화타처방 / 81
- 빈자의 변명 / 84
- 시장온도계 / 85

진단서 / 86
무가계약 / 87
폐허 / 88
괴상한 론리 / 89
경종 / 90
무너진 터전 / 91
폭발하는 섬광 / 92
깨여진 향수 / 93
불치병 / 94
21세기 공사장 / 95
유행병 / 96
갈대도시 / 97
불가저항 / 98
가죽주머니 / 100
현대하품 / 101
하강되는 수은주 / 102
꼭두각시 / 103
무덤의 도시 / 104

4. 욕망

- 몬따쥬1호 / 107
- 내륙하 / 108
- 안해 / 109
- 빨래를 널면서 / 110
- 생존을 위한 일급태세 / 111
- 낙시질인생 / 112
- 술, 그 료법 / 113
- 천만개 아픈 구슬 / 114
- 등불 / 115
- 제동 그리고 주물 / 116
- 무분별 범람 / 117
- 농축된 인생 / 119
- 산사람 / 120
- 농가마을 / 121
- 사막의 장미 / 122
- 외나무다리 건너서면 / 123
- 어촌풍경 / 124
- 바람의 거동 / 125

백의의 석공 / 127

비둘기깃 한잎 / 128

산(2) / 129

농가의 달밤 / 130

유물 / 131

축구경기 / 132

취중음시 / 133

안하무인 / 134

보검 / 135

비상 / 136

금사슴 / 137

비결 / 139

엘리네트녀사에게 / 140

질투 / 142

유언 / 143

물방울(2) / 144

개 / 145

소나무 / 146

8 / 태양의 종소리

- 돌(2) / 147
가을철새 / 148
무제 / 149
동정 / 150
이삭줍기 / 151
충계 / 152
면회 / 153
화살 / 154
욕망 / 155
락화 / 156
분풀이, 참 잘했어 / 157
비상의 전야 / 158
불가마 그리고 코크스 / 159
눈물빛 운명 / 160
빨래비누 / 161
목숨 / 162
덧 / 163
삶의 풍경 / 164
행운아 / 165

결산서 / 166

5. 미증유의 장례식

점(点) / 169

당신과 나 / 170

오솔길 그리고 해일 / 171

조각예술 / 173

지구 / 174

영생불사 / 175

발작증 / 176

병든 지구 / 177

운석 / 178

후유증(后遗症) / 179

춘서(春書) / 180

변형(變形) / 181

잠행 / 182

초침소리 / 183

흐름론 / 184

10 / 태양의 종소리

- 종소리 / 185
동면(冬眠) / 187
락하법칙 / 188
나이테 / 189
미증유의 장례식 / 190
소낙비 / 192
탄생 / 193
하느님의 도화지 / 194
구두쇠 / 195
춘심 그리고 잉태 / 196
물 / 197
세상은 그림자의 숲 / 198
착란증환자 / 199
하얀 섬 / 200
해일 / 201
태양의 정충 / 202
세월의 탕개 / 204
스승님의 계시 / 206
하느님의 관용 / 207

력사 / 208

6. 태양의 종소리

발효, 취하는 세상 / 211

혼돈된 인간의 숲 / 212

반주술 / 214

갈대밭 / 215

잠식 / 216

해동 / 217

삼복철 / 218

환원 그리고 복수 / 219

새 일출 / 221

텍스트해산 / 223

수사슴 / 224

명시감상 / 225

아래쪽문 / 226

열변 / 227

가발 / 228